

[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

## 철강회사 남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건강관련 행위, A형 성격과의 관련성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Health - Related Behavior and Type A Behavior Patterns of Male  
Workers at a Steel Factory

Jang, In-Sun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unlin College

**목적** : 본 연구는 철강회사 남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건강관련 행위, A형 성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방법** : 연구대상자는 철강회사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 171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9년 4월에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우울, 성격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분석, t 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는 조금이 65.5%, 많음 25.7%, 대단히 많음 0.6%이었다. 직무스트레스의 총점은 41.9점으로 전국 참고치 보다 낮았다. 우울은 평균 15.7로 대체로 건강한 상태였으며 심한 우울과 정신적 우울은 각 0.6%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근무경력, 근무시간, 성격유형, 주관적 건강상태이며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결혼상태, 근무경력, A형 성격, 주관적 건강상태와 숙면이었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우울, A형 성격,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 근무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A형 성격인 경우, 우울수준이 높은 경우의 근로자를 우선관리 스트레스 관리 집단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위와 같은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연구와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 등과 같은 실험 연구가 요구된다.